

김선화 / 5월 / 실전 GS / 8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541738	16.5	11.5	16.5	11.5	56	1	4.55%	22
541764	20	8.5	14	12	54.5	2	9.09%	
541776	16.5	10	14.5	12.5	53.5	3	13.64%	
541984	16	9.5	16.5	11.5	53.5	3	13.64%	
542033	14.5	13	16	8.5	52	5	22.73%	
542615	16.5	10	13	12	51.5	6	27.27%	
542812	20.5	8.5	13.5	9	51.5	6	27.27%	
542950	18.5	10.5	12.5	10	51.5	6	27.27%	
542650	16	9	14.5	11.5	51	9	40.91%	
542951	13.5	7.5	15	15	51	9	40.91%	
541733	15	10	13	10.5	48.5	11	50.00%	
542521	12	9	15.5	12	48.5	11	50.00%	
542706	11	10	15	12.5	48.5	11	50.00%	
543093	17	7.5	12.5	11	48	14	63.64%	
541783	14.5	9	15	9	47.5	15	68.18%	
542660	17	8.5	12	9.5	47	16	72.73%	
541787	13	11	13.5	8.5	46	17	77.27%	
541899	16	10	12.5	7	45.5	18	81.82%	
535192	15	7.5	13	9.5	45	19	86.36%	
542824	12	11.5	13	7	43.5	20	90.91%	
541740	14	8	13	2.5	37.5	21	95.45%	
542690	4.5	8	9	6	27.5	22	100.00%	

<p>김선화/5월/실전GS/8회/1번</p>	<p>채점자</p>
	<p>이민호</p>
<p>1. 총평</p> <p>이번 문제 역시 일반적인 음반이 아닌 MR에 관한 판례가 출제되어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했기에 어려운 문제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시험장에서 내가 모르는 것은 남들도 다 모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시험 전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만 다 습득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에서는 甲과 乙의 재산권과 저작권접권 각각에 대해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각 권리가 만료되었는지를 계산해보셨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자잘하게 실수를 유발하기 매우 좋은,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저작권접권의 경우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동안 존속하는데, 사안의 경우 1982년 8월경 발행된 음반은 그 다음해인 1983년부터 기산하여, 기산하는 해를 포함하면 2052년도 말일까지 존속하고 2053년도부터 소멸합니다. 이 계산을 틀리신 분들이 많아서, 발행한 해의 다음해부터 기산하더라도 만료일은 발행연도에 70을 더한 년도까지가 만료 시기라는 것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강사평 **</p> <p>1. 설문 1</p> <p>음반제작자의 조치 중, 웹캐스팅 관련 판례(2023다290386 외 다수)에서 “구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 포함).” 라는 법리에 따라, 상업용 음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p> <p>생각건대, 상기 판례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취지의 판례이므로, 제83조의2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본 문제 타겟 판례에서도 음반제작자의 복제권만 다룬바, 본 문제 및 답안에서 '공연'에 대한 논점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문답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설문 2

상기 수정된 문답에서 丙의 행위 검토에 '복제' 행위를 추가 포섭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선화/5월/실전GS/8회/2번		채점자		
		조은석		
<채점기준>				
문제	설문	채점기준	배점	최고점
2	1	법 제2조 제2호(저작자) 언급	1	4
		법 제10조 제2항(무방식주의) 언급	1	
		아이디어나 소재 등을 제공한 자도 저작자인지 여부 판례 (창작적인 표현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아이디어나 소재 혹은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더라도, 저작자X)	1	
		사안포섭 및 결론 - 저작자는 乙	1	
	2	법 제14조 제1항(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언급	1	12
		저작인격권의 양도불가성 판례	1	
		★사안포섭 및 결론① - 甲주장 부당	1	
		법 제13조 제1항(동일성유지권) 언급	1	
		동일성유지권 침해요건 언급	1	
		★사안포섭 및 결론② - 甲은 乙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乙주장 타당	1	
		법 제12조 제1항(성명표시권) 언급	1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성명표시권에 포함되는지 판례	1	
		법 제2조 제22호(복제) 언급	0.5	
		다소 수정, 증감된 경우 판례	1	
		★소결 - 이 사건 수정본은 이 사건 표지의 복제물	1	
		★사안포섭 및 결론③ - 甲은 乙의 성명표시권 침해, 乙 주장 타당 (‘내 이름을 표시하지 말라’ 라고 답변하였음을 언급 - 0.5점 / 이 답변이 甲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에 동의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언급 - 0.5점 / 동의하는 것 으로 보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법 제12조 제1항 위반 으로 효력이 없음을 언급 - 0.5점)	1.5	

1. 총평

설문 1에서는 ‘이 사건 표지는 업무상저작물이 아니어서 기존 원칙대로 창작적인 표현에 기여한 乙만이 저작자이다.’ 라는 논리로 가신 분들께도 점수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만을 제시한 甲도 저작자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기재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적었는데, 이번 기회에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 2에서는 동일성유지권 비침해로 가신 분들도 일정 점수를 드렸습니다.

2. 나가며

8회차 동안의 실전GS 과정 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절대 점수와 등수에 연연하지 말고 실전GS를 통해서는 저작권법 내용과 논점을 총정리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알아가는 데에만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법조문, 판례, 사안 포섭(결론)에 점수가 부여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채점기준표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점수의 세부적인 비중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임의로 작성한 채점기준표대로만 채점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잘 쓰심에도 불구하고(실제 시험에는 분명히 PASS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나 등수 때문에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실전GS를 통해 저작권법의 내용(논점)과 문제 유형, 그리고 유형과 논점별 답안작성 방법 등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화/5월/실전GS/8회/3,4번	채점자
	유화정

1. 3문 채점평

이 문제에서는 건축물이 설계도의 복제물로서 창작적 표현이 포함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짚어주며, 건축물 설계계약 시 건물을 짓는 자에게 유보된 이용권이 건축 설계계약 파기 시 어떤 상황에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침해요건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근거가 되는 판례와 요건을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4문 채점평

이 문제에서는 편지의 저작물성을 검토하고, 편지를 활용해서 만든 2차적저작물인 이 사건 소설을 작성한 乙의 이용행위가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재산권과 인격권의 측면에서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권과 인격권을 따로 나누어서 각각 보호기간 도과와 제14조 2항 단서를 근거로 들어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어주셨어야 해서 꽤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3. 나가며

어느새 실전GS 8회분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아마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이 시기에 가장 마음도 조금하고,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긴 한 건가 싶은 생각에 고민도 많고 중압감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작년의 저도 이때 정말 하염없이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5-6월의 저는 성적도 안 좋았고 판례 암기도 완벽히 안 되어 있었고(모든 과목이요) 합격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던 하루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믿기 힘들시겠지만 7월에 정말 실력이 갑자기 쑥 오르는 포인트가 왔었거든요..!

이제 곧 끝이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찾아올지 모르는 합격이라는 큰 기쁨을 위해, 남은 기간 조금만 더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파이팅!!!!

[문제 1]

205

I. 문제 1)

1. 특허법 제 22조 제 1항

(1) 음반 및 음반 제작자

1) 음반 (법 제 22조 제 1항)

음반이란, 음이 주입물이 고정된 것을 말한다.

2) 음반 제작자 (법 제 22조 제 1항)

음반 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권자로서 기입한 자를 말한다.

(2) MR 데이터 음반인지 여부 - 미지

특히 연속 부호, 즉, 음은 능동하여 MR 데이터로 생성된 바, 주입물이 음이 고정된 바인 볼 수 있고, 음반에 해당된다.

(3) 2차 음반 제작자인지 여부 - 미지

이 사건 노래는 권자 기입, 비용 및 다른 등의 권리자로 볼 수 있으며, 2차 음반 제작자이기 이 사건 음반으로 제작된 바, 2차 음반 제작자이기 권자로서 기입하고 제작자로 지칭, 음반 제작자에 해당한다.

(4) 결론

① 이 사건 MR 데이터 음반에 해당하지는 않 2차 음반 제작자로서 권리 가치를 인정 ② 특허권이 부당하다.

2. 甲이 2의 권리 침해하였는지 여부 - 3점

(1) 甲 행위 검토

1) 복제 행위

甲은 이 사건 MK 작곡권 저작권자에게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작인 B, 복사 등의 방법으로 진작자·원작자 무렵 물이 침해하였는지 볼 수 있는 사건의 복제 (법 제 2조 2) 2)에 해당한다.

2) 공연 행위

공연은 음반 등을 공연자에게 공개 하는 것을 뜻하는 미(법 제 2조 2항), 甲은 이 사건 MK 작곡권 저작권을 가진 한글에서 부른 B, 공연 행위가 해당한다.

(2) 2의 권리

1) 복제권 (법 제 18조)

음반 제작자는 2의 음반도 복제권 권리를 갖는다.

2) 음반 사용하여 공연하는 권리에 대한 보장권 행위권 (법 제 18조 2항)

상업적 음반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원상권은 음반 제작자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3) 도판

① 甲은 2의 복제권 (법 제 18조)는 침해하였고, ② 2에게 상당한 원상권을 귀속하여야 한 여부가 있다.

3. 2-1 권한 수 있는 권리

(1) 비상권 행위 (법 제 18조 2)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2) క్లబ్ శిక్ష శాసన (భా 2, 1232)

2P 자식인 편지인 복제본으로 작성한 후기에 작성된
지 확인될 수 있다.

(3) 동계애상 친구 (남자 125명)를, 민방 21명

1) 중요 여부 - 중

중요 21 부채권 침해되었다.

2) ਦੇਵ . ਪਾਤ ਜਗ - ਸ਼੍ਰੀ

29 차선의 편차는 충분히 양아, 범시 / 25인 차선이
따나 간선이 후생되는 양지만, 2이 기특하여 들한
제작의 한여한 무어에 과로이 일라진 불이 라일사다.

3) 12

위의 이익은 $\sqrt{29}$ 달러로 추정되어 본회세와 환급액의
차이.

4) $\frac{1}{2} \times \frac{1}{2} = \frac{1}{4}$ (1/2 and 1/2)

22. 자살한 후에 충만한 마음 갖고서
|살기 떠나 5년 이상 곁에 있으면서
귀하게 살 수 있다.

I. अ० (2)

1. 4월 29일 화요일 2시 51분

(1) 제1항의 범위

1) 제1항의 범위 (법 제 2조 1항)

제1항의 범위,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은 인간에 관한 것은 아니다.

2) 제1항의 범위 (법 제 2조 2항)

제1항의 범위, 제1항의 범위, 제1항의 범위를 다룬다.

3) 제1항의 범위 (법 제 1조 2항)

제1항의 범위, 제1항의 범위, 제1항의 범위를 다룬다. 이 제1항의 범위, 제1항의 범위를 다룬다.

4) 제1항

제1항의 범위, 제1항의 범위, 제1항의 범위를 다룬다. 제1항의 범위, 제1항의 범위를 다룬다.

(2) 제2항의 범위

1) 제2항의 범위 (법 제 2조 4항)

제2항의 범위, 제2항의 범위, 제2항의 범위를 다룬다. 제2항의 범위, 제2항의 범위를 다룬다.

2) 제2항

제2항의 범위, 제2항의 범위, 제2항의 범위를 다룬다.

(3) 제3항의 범위

제3항의 범위, 제3항의 범위, 제3항의 범위를 다룬다.

2. 제2항의 범위

(1) 제2항의 범위 (법 제 6조)

① 선출권이 인정된 음반이 발행된 때, ② 음반의 발매
받은 발행한 때부터 ③ ~~후~~ 70년간 존속한다.

12) 사산

음반은 1982.8 경 발행되었고, ~~후~~ 저작자 저작 음반
을 저작권이 종료한 시점인 23부터 70년 이후인 20
58. 7월 29 바, 저작 인정된 중대한 이다.

3. 저작 재산권 관련 조항 여부 - 1차

11) 발권기간 (법 제 39조)

저작재산권 생존하는 동안 별 상관 없이 70년간 존속한
다.

12) 사산

후이 저작 생존하는 바, 후이 저작 재산권 인정되므로
한다.

4. 저작 재산권 관련 중대한 여부 - 1차

① 조항 이 사건 음반은 저작권이 종료한 후 바, ~~후~~ 복제권
권용 범위 (법 제 2조 2호, 10호)에 해당한다 ③ 저작인 및
원저 저작자로 판독하는 바 ③ 후이 복제권 (법 제 16조), ~~중대한~~
수권 (법 제 18조) 중대한이다.

5. 결론

조항 후이 29 저작 인정된 중대한 아니지만, 후이 ~~후~~
복제권 및 중대한 (법 제 16, 18조) 중대한이다. [결론]

	< 문제 2 > 13
I	문제 (1) 2.5
1	상징의 권리
	① "상징"은 상표권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제23조 2항)
	② "이는 상표권자에게 당해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이 상표자가 한다" (제24조)
2	이 사건 상표의 권리자
(1)	"상표권" 범위 (제23조 1항)
	"상표권"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권리를 처분할 권리를 말한다.
(2)	상표의 범위
	이 사건 상표는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 처분할 권은 권리자에게 속하며 사용이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은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권에 귀속된다.
3	상표의 범위
	이 사건 상표에 대해 <u>상표권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u> , 바탕 <u>문자</u> 에 <u>상표권을 인정</u> 할 수 있는 <u>이유</u> 가 있다. <u>상표-상권</u> 은 <u>상표권</u> 을 <u>상표권</u> 으로 <u>인정</u> 할 수 있는 <u>이유</u> 가 있다. <u>상표-상권</u> 은 <u>상표권</u> 으로 <u>인정</u> 할 수 있는 <u>이유</u> 가 있다. <u>상표-상권</u> 은

II	문항 (2) 10.5
1	주제어 2개
	이 사건 특허권의 효력, 甲-Z 특허의 효력을 인정 한다
2	이 사건 특허권의 효력 인정
(1)	주제어 4개 (제23-222)
	① "주제어"는 특허를 등록 신청한 고지된 것으로서, ② "이 주제어를 2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다른 특허 출원인 다른 한 특허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특허 출원인 이다" (제232)
(2)	2개 이상 특허의 4개 (제232-233) · 제234조
	① "2개 이상 특허"는 2개 이상을 포함 1개의 발명에 관한 청구항으로서 ② "2개 이상 특허"는 2개 이상을 포함 한 특허를 2개 이상 포함하는 다른 특허 출원인 한 수 있는 것으로 다른 특허 출원인 포함한다" (제232)
(3)	주제어 4개
	이 사건 특허권은 이 사건 특허를 기점으로 작성된 것으로 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거나, 인출된 후 수정·완성이 배정된 변경 등은 다른 특허 출원인 포함하는 다른 특허 출원인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허 출원인 포함하는 것으로, 이 사건 특허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2) 중립성 유지할 수 있는 방법

1) 상대방은 2회 상대방의 불응·불응 후 3차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3조 1항)

2) 중립성유지권을 인정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이 "중립성의 개념을 가하여 중립성을 침해한다, 그러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권리 또한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3) ① 이 사건 심판은 이 사건 분야의 불응·불응에 중립성의 개념을 가진 것으로서 이 개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2항과 2 중립성이 인정된 불응성의 침해가 인정된다.

② 권리, 사실 인정하기 전 2회 불응을 인정하거나 제3회 불응에도 사실이 인정되면 사실·불응권을 인정하여 중립성 침해로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주장.

③ 나머지 2 상대방의 불응·불응에 대한 부당하게 인정할 수 없다 한다 (제133조 2항 2호)

④ 따라서 중립성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인정된다.

(3) 소결

①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중립성유지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인정할 수 없다

[끝]

[문제 - 3]

16.5

I. 설문 (1)

1. 문제의 소재

이하 설문(2)에서 검토하듯 "이 사건 설계도"는 관공저작물이나
"이 사건 박물관"이 "이 사건 설계도"의 복제물인지 검토한다.

0.5

2. "이 사건 박물관"이 저작물인지 여부 - 소극

(1) 저작물 의미 (저작권법)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등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물 성립요건 (판례)

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며,

② 사회통념상 별개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수준·비평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을 추가해야 한다.

1.5

(3) 사안

2은 "이 사건 설계도"를 따라 단순히 "이 사건 박물관"을
건축한 것인 "새로운 창작성"의 추가가 없으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3. "이 사건 박물관"이 복제물인지 여부 - 적극

(1) 복제 의미 (2조 22호)



건축물의 경우 건축을 위한 설계도를 따라 이를 시공한 것이다.

(2) 사안

같은 건축자락물인 "이 사건 설계도"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설계도"에 표기내용이다.

4. 결론

따라서 "부당하다."

II. 결론 (2)

1. "이 사건 건축물" 저작물성 인정여부 - 적극

(1) 저작물 의미 (2조 1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2) 건축자락물 의미 (4조 1항5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건축물 또는 건축을 위한 설계도에 표현한 창작물이다.

(3) 창작성 판단 기준 (원칙)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사상 또는 감정에 대한 창작과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한다.

(4) 건축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判例)

건축 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므로 단순히 "기능적 사상"이나 실용적 사상이 원인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창작성이 없으나, 이를 넘어서는 "창조적 개성"이 표현된 경우 건축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5) 사안

- ① "이 사건 박물관"은 불멸 모양의 외벽, 건물 외관에 정육각형의 뿔이 있는 공간, 층에서 무르익 자리 이어지는 계단 등이
- ② 기능적 사상이나 실용적 사상을 넘어서는 무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 ③ 무의 사상 또는 감정이 건축물에 창작적으로 표현되어
- ④ "건축 저작물"로서 "저작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박물관" 저작권과 - "무"

(1) 저작과 의미 (2주 2표)

저작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 저작권 판단 기준 (判例)

~~저작자~~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자만 저작자이다.

(3) 사안

- ① "이 사건 박물관"은 "이 사건 설계도"의 복제물로서,
- ② "이 사건 설계도"의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자는

- 이를 시공한 것이 아니라, 작성한 "甲"이므로,
 ② "이 사건 발원지"에 저작자는 "甲"이다.

3. 결론

- ① "이 사건 발원지"는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② 저작자는 "甲"이다.

0.5

II. 실문 (3)

1. 저작물의 이용허락 (46조)

(1) 내용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사항

甲은 사용사건과 건축설계제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이 사건 설계도"에 대한 "복제권 (16조)"을
 이용 허락 한 것이다.

2. 건축설계제약 제13조 제1항 제1호 - 적극

(1) 취지

건축물 저작을 위해 설계도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후에 건축설계제약이 파기된 경우, ① 이

설계도가 승용사에게 "교부" 되었으며, ㉔ ~~승용사~~ ~~에게~~ ~~"교부" 되었으며~~ ㉕ 승용사가 이미 상당부분
 "권력" 되었으며 ㉖ 다른 중대한 장부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순서"이 존재하며 ㉗ 승용사를 바라는 것이
~~승용사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설계도의
~~승용사에게~~ 이용권은 승용사에게 "유보된 것이다."

(2) 사건

- ① 승용 "이 사건 설계도"가 승용에게 "교부" 되었으며,
- ② 권력계약 체결시 승용에게 이미 "교부" 되었을 것이며,
- ③ "이 사건 법률관"이 대한 승용사가 이미 상당부분
 "권력"이 되었으며,
- ④ "이 사건 법률관"이 권력을 중대한 장부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순서"이 존재하며,
- ⑤ "이 사건 법률관"이 권력을 바라는 것이 승용에게
 "이익"이 되므로,
- ⑥ "이 사건 설계도"의 ~~승용사에게~~ ^{승용} 대한 이용권이
 승용에게 여전히 유보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승용에게 "이 사건 설계도"에 대한 ~~복합권~~ ^{복합} 복제에
 대한 이용권이 있으므로, "권력이 아니다."

[끝]

[문 제 3] 16.5

I 생문 1)

1. 2차적 저작물 의미 (문 제 53)

원저작물을 번역·편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인 저작물로서 본다.

2. 2차적 저작물 완성기준 (원 제 54)

원저작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케 하는 여부는 원저작
 물에 기록되어, 원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며
 사후발행하는 A3은 수정·보충을 가하여 새로 창작물을
 되어야 한다.

3. C의 진술행위 정도 -복제

(1) 복제 의미 (문 제 23 제 2항)

① 복제는 인쇄, 복사 그 밖의 방법으로 원저작 또는 영구적
 으로 유형물에 고정되거나 다시 제작되는 것을 말한다.

② 진술저작물의 경우 그 진술을 위한 모형을 또는 설계
 에 따른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사안의 경우

C의 행위는 동등한 형태의 복제물 상계로써 거래
 진술상계 계약에 따라 그 내용에 수정·보충을 가한 후
 없이 설계로 새로 진술을 작성한 사례는 복제
 행위에 포함된다.

4. 상품의 태권

그의 비동행하는 복제에 불리하여 그의 저작물 작성
행위에는 관여 없으므로, 그 주장을 부각한다.

표 상품(2)

1. 복제물의 저작물성 검토

(1) 전통저작물 이외 1차 저작물 제1항 제5호

전통문·전통문 관련 로열 및 상표로서 그 복제 형태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전통저작물 저작성 판단 기준 (원칙)

원칙은 전통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저작물로서 그 표현이
창작성 표현이 아니거나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에 그치는
경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표현에 창작성
동등적인 표현이 있다면 저작성의 인정된다고 판정한다.

(3)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상표도를 그대로 복제한 전통물에 비하여
불대, 위로 솟은 문장 모양의 외벽, 전후의 장문대
유착판과 문려 앞판, 1층에서 루프탑까지 걸쳐
에어는 내부 계단 등 독특한 내외부 디자인을 갖고
있으며, 이로써 유망해지고 관광 명소까지 되었으므로
그 상품과는 차등적 저작물에 한 수평선에도

관객적 표현이 반영되다 할 것이어서 저작물성 인정
된다.

2. 이 사건 작품관의 저작권자 검토 - 甲

(1) 창작자 원시적 귀속 (저작권법 제103)

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② 저작자는 창작한 때부터 보호받으며 이러한 권리는
형식적 이행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의 행위] - 복제

성문(나)에나 검토한 바와 같이 [의 행위는 복제에
된다. 0.5

(3) 진흥생계계약의 거의 [취체]

취체는 생계로서에 대해 진흥주가 시로(나)에게
진흥계약을 맺는 경우에 여전히 저작권자는 생계주를
작성한 진흥가이며, 시로(나)는 그 이용권을 저작물은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4) 사안의 경우

① 생계로서 복제의 진흥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로서 甲이
가지는 것이어서 저작권자는 甲이고 ② [의 그 이용권은
사태 복제 관 것이 불과하다. 0.5

Ⅱ. 비문(3)

1. 저작권 취득제도권 검토

① 유호한 저작권에 대한 ② 이동행위를 하고
③ 저작물에 위대한 것이거나 ④ 그와 성격 유사성이 인정
되는 경우 정당권원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에 해당한다.

2. 위작성·식별권 유사성 검토 (각각)

무엇보다 저작물은 식별권이 거의 집중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위작성과 성격 유사성이 인정된다.

3. 이동행위 검토 - 복제 (한계23 제122조)

이는 식별권보다 집중을 시키는 복제행위를
하는 것이다.

4. 정당권원 검토

(1) 계약 종료 후의 경우 (위해)

위해는 식별권이 거의 집중계약에 따라 이루어
어려지고 있는 경우, 전자가 시공업체 시에 계약종료
상도권의 계약이 종료 되기되기므로 이미 상당한 공헌이
모두되었고, 식별권이 상당부분 인정되어있어, 저작권 권력
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간소화된 권력을 대체하는 것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용대한 본사에 해당권원 장에는
여전히 집중 시공업체들에게 이월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한다.

(2) 사안의 경위

무라 더 집중하게 계약이 공사 중 종료 되기 직전
이러한 상황은 직격되었는데, 이후, 동태한 상태로
정지되어, 공정이 모두된 상태에 있어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다.

5. 식물의 재현

- ① 더 이러한 상황 중에는 대개 과학적으로 식물이
관찰된 경우 그 수직적·정적적 중립에 의해 이온이
유보되므로 비특성에 해당한다.
- ② 한편, 그 공정이 모두된 상태이고, 식물이
관찰되기도 않아서 그 공정이 모두된 후
이온이 유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으로도
계속한다면 관례에 해당할 수 있다.

[중]

[291-4].

125

J. 全量(1)

1. 자꾸만 들리는 것과 충성

dl e|e| (7/22/15)

不齊點 控制 俗 點 點 點 點 點 點
不齊點 點 點 點 點 點 點 點

(4) 장악/3a e/2a (1/1a)

"창조성이! 하하하 그 똥똥이 을 신나게
이러하고 그 똥똥이 똥똥 똥똥 똥똥 똥똥
똥똥똥똥."

2. Find the

11 4/10)

"한글의 경우 한글 문법이나 사실에 대한 통일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한 한글의 구조에
상관 없이 한글의 사용에 대한 통일도 중요하다."

(2) 사후의 경우.

[illegible]

甲 2491/1 乙 2500/1 丙 2501/1 丁 2502/1 戊 2503/1 己 2504/1 庚 2505/1 辛 2506/1 壬 2507/1 癸 2508/1

제출 고지, 발명가에게 특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는 특허 제도를 운영하여 발명가에게
특허를 부여한다.

3. 결론

이 사건 특허는 특허 제도에 해당한다.

I. 결론 2.

1. 특허 제도의

특허 1944년 5월 25일 시행된다. 이 사건 특허는
특허 제도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특허 제도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특허는 특허 제도에 해당한다.

(1) 발명가에게 (특허 제도에)

특허 제도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인정된다. 특허 제도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인정된다.

(2) 특허 제도에 (특허 제도에)

특허 제도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인정된다. 특허 제도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인정된다.

(3) 사건의 경우.

특허 1944년 5월 25일 시행된다. 이 사건 특허는
특허 제도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인정된다. 특허 제도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인정된다.

부작용을 줄이고 Acl 작용 향상.

3. 소위 위장 거래란 주식 거래의 실질을 무시한 채

✓)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 (저작권법)

거주인민들은 인신권속 규약으로 양로원까지 돌아
서 일주일, 거꾸로 돌아와서 일주일, 2019
부터 시작, 거꾸로 돌아와서 일주일.

(2) 硯石 800g 硯石 (1/42 2인 분)

거주자의 4명 중 1이 그다지 자주는 아니라는 것을
거주자의 생활행태를 그 거주지역의 환경에
맞추어 개선할 수 있다.

(3) θ 의 (1/4)로 \angle 의 변인

ଅର୍ଥ ୨ ଗୁଣା ଶିଶୁଙ୍କୁ ଶୁଣା ଶୁଣିବ. ସଂସ୍କୃତି
୨ ଶିଶୁଙ୍କୁ ଶୁଣା ଶୁଣିବ. ସଂସ୍କୃତି
ସଂସ୍କୃତି.

(4) 부족의 리 43

[illegible]

(5) H_2O 7.5

① $\frac{1}{2} \times 2 = 1$ $\frac{1}{4} \times 4 = 1$ $\frac{1}{8} \times 8 = 1$ $\frac{1}{16} \times 16 = 1$ $\frac{1}{32} \times 32 = 1$ $\frac{1}{64} \times 64 = 1$ $\frac{1}{128} \times 128 = 1$ $\frac{1}{256} \times 256 = 1$

문제-4) 125

I. 보충이.

1. 저작물 의의 및 판단 기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국회),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에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있을 것을 요한다.(제)

2. 편의의 저작물성 인정 가부(제)

편의의 경우 단순한 문안이나 사실 같은 것은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저작물성 인정 할 수 없거니
편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3. 사안의 경우.



무의 편지에 타지에서 느끼는 감정, 어머니와 형제 등에 대한 그리움, 물리학에 대한 평소의 생각등을 담았는데, 이는 단순한 물안인사가 아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편지는 무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II. 서문(2)

1. 문제의 소재

무의 편지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2의 행위가 무의 저작재산권 침해인지 여부와 14조 2항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다.

2. 무의 편지의 저작재산권과 판단.

(1) 편지의 저작권과 판단.

편지의 소유권은 수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편지를 작성한 발신인에게 있다.

(2) 사안의 경우.

무의 편지의 소유권은 수선자인 무의 어머니에게 있지만 무의 편지의 저작권은 무에게 있었으며, 현재는 무의 상속자인 아들 A가 무의 편지의 저작재산권자이다. 저작인격권은 일신권속성이 있으므로 (514 ①) 무이 사망했으므로 소멸되었다.

3. 2의 행위가 무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1) 침해요건 (判)



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하며, 침해라 할 이용행위가 있으며,
침해물이 저작물에 의거하며,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2) 의거성 여부 판단.

1) 의거성 판단기준 (제1)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의거성이 추정된다.

2) 사안의 경우.

2은 이 사건 편지를 받았으므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편지를 이용하여 소설을 집필했으며, 이 사건 소설에
이 사건 편지 내용은 그대로 일부는 변형되어 삽입되었으므로
유사성이 인정되기에 의거성이 추정된다.

(3) 실질적 유사성 판단

1)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제1)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대비하여 판단한다.

2)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소설은 이 사건 편지를 바탕으로 집필되었으며, 이 사건
편지 일부는 그대로, 일부는 무의 효성을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약간 변형되어 삽입된 점을 고려하면 편지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4) 2의 이용행위 판단.

1)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의의

① 복제는 복사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이 고정
하는 것을 말하며 (2조2항) ②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공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약하며 (2조 2항 2호) ③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5조)

2) 사안의 경우.

①은 이 사건 소설에 이 사건 편지 원고는 그대로 원고는 약간 변형되어 삽입했으므로 이는 복제 행위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소설을 출판하여 판매했으므로 배포행위에

대응하며, ③ 이 사건 소설은 이 사건 편지를 기초로

작성한 소설이며, 식각적 유사성이 있지만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5) 도표

2의 행위는 무의 저작 재산권 중 복제권 (116), 배포권 (118)

2차적 저작물 작성권 (522)을 침해했다.

4. 2의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 인지 여부

(1) 저작자 사망 후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514 ②)

저작자의 사망 후 2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자의

생존 하더라도 2의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2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사실에서 무의 성폭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어리석음에 대한 흡수가 늦을 뿐만 아니라 애국심이 강하여 우리나라에 귀감이 되는 세계적인 독립운동가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 통념상 무의 행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기에 14조 2항 단서에 해당하기에 14조 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A의 무의 저작 재산권 침해 주장은 타당하지만, 2의행위가 무의 살아있었더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라는 주장 불당하다.